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4년 7월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며



나영일(회장)

존경하는 활쏘기문화보존회 회원 여러분!

활쏘기문화보존회가 발족한지 벌써 3년이 지나 임원진 1기가 끝날 즈음, 문화재청이 새롭게 ‘국가유산청’으로 발족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정관을 변경시키면서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활쏘기문화보존회는 지난 2020년 서울시의 지원으로 ‘국궁발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연구팀 내에서 우리나라 활쏘기문화를 발전시킬 단체설립 필요성이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30일, 활쏘기가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재로 등재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연구팀을 중심으로 활쏘기를 사랑하는 20명이

각각 100만원씩을 기부하여 활쏘기문화보존회를 설립기금을 조성하고, 사단법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여 2021년 2월 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활쏘기를 국가문화재가 아니라 ‘국가무형유산’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활쏘기문화를 발전시키고, 활터문화의 소중한 유무형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은 상당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된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소식지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활쏘기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초에는 기관지를 만들려고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역량이 그렇지 못하여 우선은 뉴스레터의 소식지로 회원님들과 주변의

한량들에게 우리의 활쏘기문화를 알리려고 합니다. 전국의 활터에서 활을 내는 모든 분들과 활과 화살을 만드는 분들은 활쏘기문화의 산 증인이며 전통문화유산의 상속자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활쏘기문화유산의 상속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알고 싶거나 새로운 내용을 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활쏘기문화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쏘기문화보존회는 활쏘기를 건전한 경쟁과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통문화교육의 대상으로 활터의 다양한 문화와 사라져간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며 보존하는 역할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활쏘기문화의 발전을 위해 활쏘기문화회원 및 선배제현여러분의 도움과 질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호정



『조선의 궁술』 유감 _ 유산의
창조적 보존을 바라며

김기훈(화랑정)

『조선의 궁술』(1929)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궁계 최고의 고전이요 보감이다. 삼국시대 이후의 국궁의 역사를 최초로 정리하였고, 민간 사정의 연원과 사풍, 이에 기반한 한국 전통 스포츠의 기원인 편사를 기록으로 남겨 주었다. 거의 백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국궁인들이 이 책을 계속 찾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책 속에 국궁인들이 갈구하는 전통 사법(射法)의 핵심이 보존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국궁계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우리 보존회에서 이 책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조선의 궁술을 주제로 한 최초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

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궁술』에는 예사(禮射)에 관한 언급이 전무하다. 다른 나라 활쏘기 문화와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궁중에서 국왕이 주관한 대사례와 지방 수령이 주관한 향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영조대에 시행된 대사례는 실제로 시행 과정의 기록과 그림까지 현존한다. 향사례도 성쇠는 있었으나, 정조대에 발간된 『향례합편』이 보여 주듯이 그 시행을 위한 지방과 중앙 정부의 노력은 조선 말까지 줄곧 이어졌다. 이런 자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궁술』은 예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계승될 수도 없고, 계승할 필요가 없는 왕조시대의 문화라고 본 저자 이중화의 실용적인 집필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여하튼 이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의 궁술』은 우리나라 활쏘기 문화의 전모를 소개하였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자료 부족의 결과라고 보이는 사례이다. 서문으로부터 본문 곳곳에서 당시에 활쏘기 기술 즉 사법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여 활쏘기를 배우고 익히기가 힘들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본의 아니게 그 이후의 공사들에게 오랫동안 활쏘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 하지 않거나 혹은 간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궁계는 임진왜란 이후에 군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활쏘기 부분이 있고, 영조 연간에 평양감영에서 복각한 『무경칠서휘해』 속에 『사법비전공하』라는 사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실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의 궁술』 필자는 이를 보지 못하였거나 간과했던 것 같다. 또한,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 실린 『사결』이나 장언식의 『정사론』, 서영보의 『사예결해』 등이 뒤늦게 소장처를 통하여 알려졌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보관되었던 필사본이라 아마도 이중화가 집필 당시에는 살펴볼 수 없었을 자료라고 생각된다. 『조선의 궁술』보다 이른 시기에 쓰여진 이 사법 관련 자료들의 발견으로 조선의 궁술이 설명한 ‘전통 사법’을 비교 검토하는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조선에 사법 기록물이 없었다는 필자 이중화의 단정적인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인정해야 하게 되었다.

『조선의 궁술』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귀중한 국궁계의 문화 유산이다. 이 유산의 창조적 보존은 그 유산을 이모저모 자세히 따져보고 보완하며 발전시킬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며, 그 후속 작업은 우리들의 몫이다. 후속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단서로 『조선의 궁술』에서 빠진 부분을 주마간산식으로 살펴보았다. >

『양평정의 발자취』 집필과정에 대하여



한용진(양평정 부사두)

2022년 6월 차윤경 접장이 양평정 제11대 사두로 취임하면서, 우리 정 의 역사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고문 단이 포함된 7월 9일 임원회의에서 부사두를 맡은 내게 집필 책임이 주 어졌다. 처음에는 『양평정 25년사』 로하기로 하였지만, 몇 번의 홍수 로 사라져 버린 초기 역사를 조사하 면서 설립 시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 고, 「○○년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 의 사관(史觀)을 갖춘 책자는 아니

라 판단되어, 『양평정의 발자취』로 제 목을 변경하기로 하였다.1)

책자의 편제 구성은 제I부 ‘사진으로 보는 양평정’에서는 발간사와 축사(祝辭), 양평정의 역대 사두님들 사진과 다양한 전경 사진과 축화(祝畵) 등을 담고, 제II부 ‘양평정의 발자취’에서는 양평정의 지리적 위치, 연혁(1) - 정초 기와 이전기, 연혁(2) - 발전기, 그리 고 양평정의 사례(射禮)와 국궁용어들 을 실기로 하였다. 마지막 제III부 ‘사 우들의 목소리’에서는 양평정 사우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양평정에 여러 번 방문하여 습사를 즐겼던 사)활쏘기 문화보존회 회원님들과 고려대 한량 회 및 한양대 심궁회 대학생 공사들의 소감문도 실기로 하였다.

원래 양평정은 남한강 교수부지 (개군면 하자포리 425-15)에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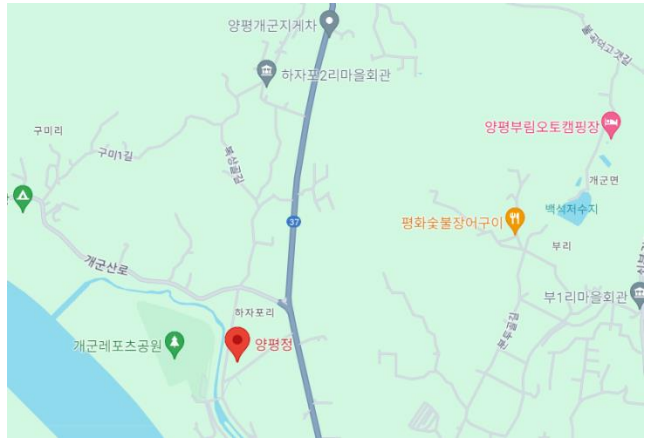
1)(사)대한궁도협회 편(2016). 『궁도90년사』나 김이수 교수(국궁교수회 회장)를 중심 으로 서령정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瑞寧亭五十年史』(2018)도 있지만, 수원시궁 도협회 연무정사편찬위원회, 조이식 편(2013) 『練武亭記(연무정기)』나 임실군자 정에서 간행한 『임실의 활터 君子亭(군자정) 이야기』(2013) 등은 ‘사(史)’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記)’나 ‘이야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체육시설(공설운동장)이었는데, 4대 강 사업으로 이포보가 설치되면서 석장리로 임시 이전하였다가 2015년부터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15(개군산로 546-33)”로 새 건물을 짓고 옮겨오게 되었다. 설립 시기와 관련하여 대한궁도협회에 문의하였지만 확인할 수 없었고,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편(2007)으로 간행된 『전국의 활터』에도 경기도 지역의 72개 활터 중에서 양평정은 35번에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 연도는 빈칸으로 되어있었다. 그나마 컴퓨터에 남아있던 2005년 자료에 의하면 1998년 8월 17일에 양평군 국궁협회가 만들어지고, 1999년 6월 10일 18명의 발기인으로 양평정이 정식 발족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초대 황순돈 사두가 기증한 「습사무언(習射無言)」 비석에 적혀있는 1999년 6월로도 입증된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참여하셨던 고문님들의 기억에 의하면, 1998년 초부터 대략 7명이 준비위원회 형식으로 식당에 모여서 활터 설립을 논의하였고, 이는

개군 레포츠공원이 정비되는 1998년 10월보다 앞선 시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정에 비치되어 있는 사두 영정사진에 적혀있는 초대 사두 임기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결국 1998년 6월 1일부터 양평정은 1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활을 내기 시작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설립 신고를 한 것은 1999년 6월 10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조차도 대한궁도협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침 금년도 10월 13일에 경기동부권 12개정 대회가 양평정에서 개최될 예정이기에, 이에 맞춰 『양평정의 발자취』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궁도협회(<http://kungdo.or.kr/>) 활터 현황에 소개되어 있는 전국 391개 활터(2024년 7월 현재) 중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활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활터는 1970년대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사들이 단지 활만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활터의 역사를 제대로 알 때, 활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많은 활터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에 남겨놓은 작업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작업임을 새삼 느껴본다. >



**전라북도등록문화재 11호 김제
홍심정 1903년 시지**



김산(김제 홍심정, 전북대)

이 시지는 1903년도에 전주 3사정이 개최한 궁술대회에서 단체전에서 우승하여 획득한 것이나 전주 3사정에서 주체한 김제 천홍정(지금의 홍심정)¹⁾과 태인의 관덕정의 편사에 대한

기록 으로 1903년 당시는 전통적인 사회가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서 시지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확인 할 수 있는 시지는 조선시대 이전의 것은 없으며 조선시대의 시지로는 1678년 향적계획지와 정조시대 시지라 할 수 있는 고품이 있다. 이후 조선 후기 개화기 시지로는 『조선의 궁술』에서 예로 든 1872년 풍속정장안편사 기록과 김제 홍심정에서 보 관된 시지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 시지로는 1928년 전주 천양정에서 개최



그림 1. 천홍정(홍심정) 시지 펼친 모습



그림 2. 천홍정 시지 전면



그림 3. 천홍정 시지 후면

1) 김제 홍심정은 당시에는 천홍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 시지로는 1928년 전주 천양정에서 개최한 전선궁술대회 시지와 1934년 전조선궁술대회 시지 그리고 정읍 필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시지로 1936년 전라북도 부안 심고정에서 개최한 호남4개군 연합 궁술대회 시지가 있다.

광복 이후 시지는 1959년부터 1964년, 1969년, 1970년, 1973년, 1977년 전라북도 지역에서 개최된 궁술대회의 시지들이 있다.

조선 후기 중 개화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 시지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홍심정에 보관된 시지가 유일하다. 시지의 내용은 계묘(癸卯)년인 1903년 5월24일 전주부 3사정인 다가정, 읍양장, 군사정이 함께 개최한 대회로서 다가정 과녁을 사용하여 치러진 대회에 관한 내용이다. 시지는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빨간 색지와 노랑 색지 두 장이 합쳐진 형태이다. <그림 1> 왼쪽 노랑 색지의 맨 왼쪽에는 김제 천홍정이라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빨강색지의 맨 오른쪽에는 태인 관덕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랑색지에는 김제 천홍정에서 출전한 사원들의 이름, 빨강 색지에는 태인 관덕정에서 출전한 사원들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고 사원들의 이름 밑에는 그 사원들이 3순을 쏘아 맞춘 화살의 순서를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하였고 맨 아래에는 맞힌 전체 화살의 숫자를 적어 놓았다.

이와 함께 <그림 2> 빨강색지 전면에는 비김제천홍정부족삼시(比金堤穿紅亭不足三矢) 즉 김제 천홍정과 비교하여 3시가 부족하다고 내용과 <그림 3> 노랑색지 정 중앙을 보면 비태인관덕정가삼시(比泰仁觀德亭伽三矢) 즉 태인의 관덕정과 비교하면 김제 천홍정 사원들의 맞힌 전체의 수가 3점이 더 높다는 것을 표시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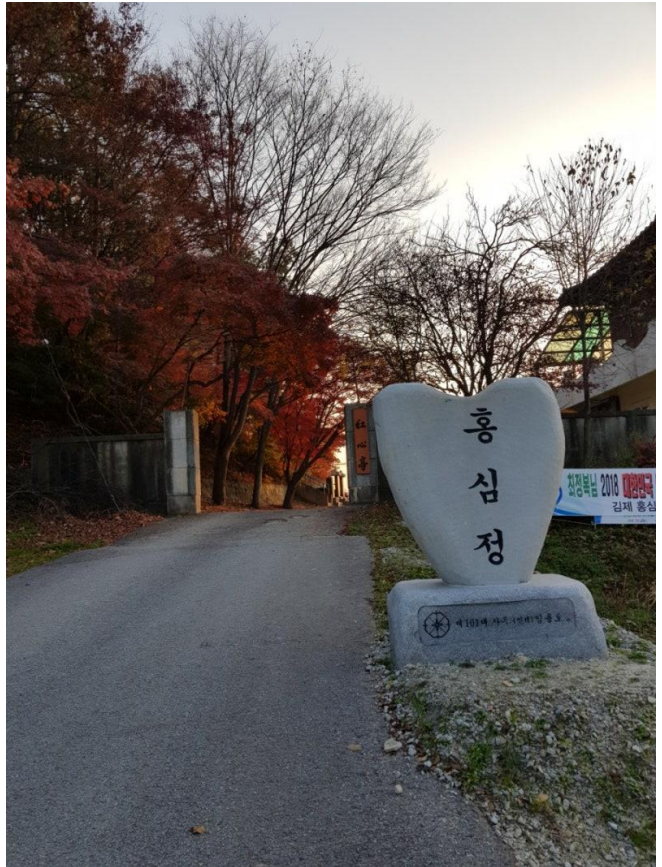
이런 방식은 기존의 방식 즉 정조 시대의 고풍에서 사용하던 관종과 변을 구분하여 다르게 계산 하는 채점 방식이 아닌 현대의 채점 방식과 같이 과녁을 맞힌 것을 모두 1점으로 채점하

는 것과 같은 것이다.²⁾

이후 이러한 형태의 시지는 1928년 (소화 3년) 전주 천양정에서 개최한 전선궁술대회의 시지³⁾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천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조선 후기 개화기 이후 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제 홍심정의 시지가 가진 가치는 1894년 무과폐지 이후에도 민간에서도 활쏘기가 지속되었고, 그 형식이 현재의 활쏘기와 유사한 편사 방법인 것을 볼 때 한국의 활쏘기가 끊인 없이 지속된 신체활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러한 개화기의 활쏘기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2) 『조선의 궁술』, pp. 132 - 133, 7장 편사의 규칙에서 예로 든 1872년 5월 2일 풍속정 장안 편사 시지에는 맞힌 화살을 모두 변이라 표기하고 실제 시수를 계산함에 있어 과녁에 맞힌 것을 1점으로 하는 채점방법을 볼 수 있다.

3) 나종우, 김진돈(2019), 『전주천양정 삼백년사』, pp. 138- 139.

한국 전통 활쏘기의 보존 과 세계대회로의 기회



양세희(석호정)

한국 전통 활쏘기의 보존을 위하여 전통활쏘기보존회에 들어갔지만 어쩌다 보니 한국 전통과 관련 없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제5회 World Nomad Games(WNG: 세계유목민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의 소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 대회는 최초 한국의 145미터가 정식 종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작 한국은 해당 대회에 관심이 없어 1,2회 만에 해당 종목이 없어지고, 터키, 카자흐스탄의 전통 활쏘기만 정식종목으로 남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국궁이 자국에서 어떻게 터부시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원해서 가는 대회지만, 이번 대회 준비로 현재 국궁이 생각보다 20,30대에 인기 있는 주류 종목이 아니어서 대중의 관심이 낮고, 이로 인해 협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 국궁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전문선수가 아닌 직장인들로서 평일 오후 근사를 연습할 장소가 없다는 것과, 서울에서 70미터 활을 쏠 수 있는 단거리 습사가 가능한 활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사만을 중시하는 풍토여서 세계적으로 근사대회가 얼마나 많고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은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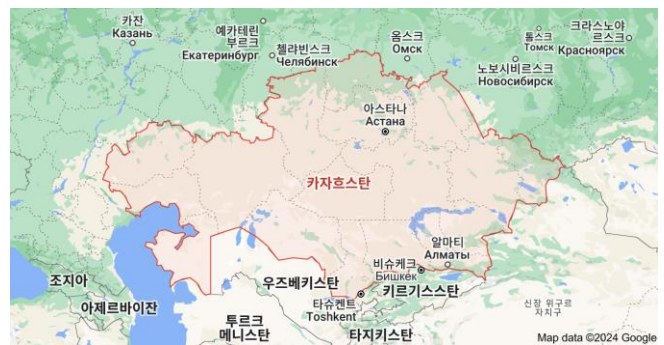
협찬 없이 100%로 자비로 가는 대회인 만큼, 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전통화살과 전통의상에 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WNG는 활은 카본이 가능하지만, 화살만큼은 천연 재료로 만든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죽시는 해외와는 다르게 Spine, Vanes Placement, Arrow Point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쓰는 몇치 몇돈만 알면 끝나기 때문에 정말 좋기는 하지만, 죽시 외에 근사에 쓸 저렴한 전통 화살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죽시와 해외 화살 master에게 주문한 것을 예비로 들고 가게 되었다. 또한, 근대에 들어 활터에서 한복을 입고 쏘는 것이 지탄 받고 있는 모순 속에서 전통복장을 입고 경기를 치뤄야 하는게 불편한 것이 많을지 전혀 모르는 어려움 까지...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한복을 입고, 거기다가 여자 한복을 입고 활을 쏜다는게 어떤건지 자문을 구할 곳도 참고할 곳도 없이 결국제로에서 시작하는 WNG이다.

비록 145미터 원사도 아니고 준비에 어려움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전통활을 다시 알리고, WNG 2026에서 국궁 종목이 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https://worldnomadgames.kz/en>



(2024)

1. 총회개최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기

지난 1월 10일 총회를 위한 이사회가 열렸고, 1월 13일에 양평정에서 총회가 열렸다. 당시 안건은 2023년도 사업 결과 보고 및 승인 건, 202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건, 임원개선 건이었다.




제2021-1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사단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5길 5, 404호(신당동, 여흥회관)
3. 대표자
 - o 성명: 나영일
 - o 생년월일: 1956.10.04.
 - o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 103(신당동, 비전빌라), 1동 B103호
4. 사업내용: 국가무형유산 활쏘기 문화의 발전적 계승과 전통문화 및 인류문화의 발전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 가 유 산 청 

그러나 1월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비영리법인 명칭 변경 등 협조요청’의 공문이 와서 부득이 비대면 총회를 2월 23일에 다시 하고, 승인을 받아야했다. 그러나 비대면을 인정하지 않아 다시 3월 15일에 이사회를 하고, 총회를 4월 6일에 다시하여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무형문화재 과로부터 4월 23일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 후에 국가유산청의 정관 변경 허가서를 바탕으로 관할 중부등기소에 등기를 하였다. 정관변경을 할 때는 2/3이상의 찬성을 해야 하고, 그것을 증명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번잡하고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중부세무소에 세금을 납부하여 5월 22일에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국가유산청으로 법인 등기내역을 첨부하여 확인을 거친 후, 6월 17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다.

총회에서는 지난 3년동안 수고해주신 최석규사무총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새롭게 정재성사무총장과 이동보사무국장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신임 부회장에 김이수(충남 서령정)이사가 등기이사로 선임되었고, 남수 이사가 사퇴하였다. 등기이사는 나영일, 김이수, 김창선, 박근, 최석규, 한용진이사이다.

2. 세계노마드(유목민)게임 참가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세계노마드 게임에 활쏘기문화보존회에서 1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노마드게임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번이 제5회대회로 활쏘기를 포함하여 총 21개 종목으로 약 85개국에서 3,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활쏘기에서는 30여개국 260여명이 참가한다. 지난 1월 총회에서 이에 대한 공지가 나간 이후에 3월 16일에 참가를 신청한 선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고, 5월 4일과 6월 6일에 선발전을 거쳐 선수 10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코치 2명, 심판 1명 등 13명의 선수단과 학술세미나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 선수단

- 코치: 이동보, 권오정 / 심판: 주동진
- 남자선수: 변정용, 한용진, 지동철, 이헌정, 송윤종, 오진병
- 여자선수: 문미숙, 박민정, 양세희, 서정화

○ 학술세미나

- 나영일, 변정용, 한용진, 김창선, 주동진, 박근 (3명은 선수와 심판)

노마드게임에서는 25센티미터 지름의 움직이는 과녁인 잠비를 30미터에서 쏘고, 양궁과녁처럼 생긴 칼칸과녁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60미터와 50미터에서 또 사람 가슴통처럼 생긴 푸타과녁은 70미터와 60미터 사거리에서 맞춰야 한다. 모두가 근사경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6월 6일에 장영민접장을 초청하여 근사법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한편 활쏘기의 유네스코등재를 위한 준비회의로서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의 김덕순실장과 함께 4월 3일 하누엘뜰에서 오랫동안 등재준비를 하였던 이승환, 김종훈, 허엽회원이 함께 모여 논의하였다.



잠비



칼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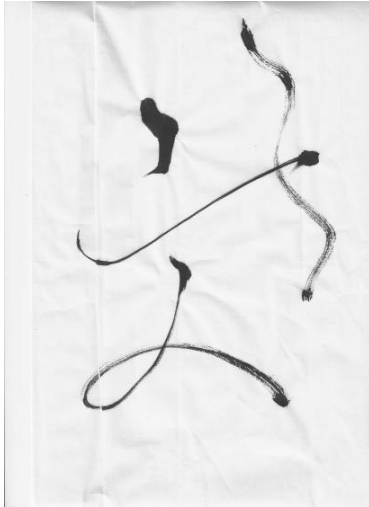
푸타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에서 우리 보존회와 함께 카자흐스탄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들과 같이 연락처를 공유하고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체제구축 작업(줄다리기 방식 검토) 그리고 유네스코등재시 활쏘기 범위 및 중앙아시아의 각궁제작 기법 등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세계노마드게임에 대한공도협회와 울산시에서 참관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 10월중에 세계활쏘기대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예정이기때문에 내년부터는 울산시의 전폭적 지원으로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등재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가대표단의 준비단장은 이동보국장이 맡아서 전반적인 일을 진행하고, 조직위원회와의 연락과 실무적인 일은 송윤종회원이 팀장으로 또 양세희회원이 부팀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경비가 많이 들고 있다. 개인적으로 비행기표를 구해야하고, 한복(소창의, 갓, 신발)과 죽시 등을 준비하다보니 한사람당 약 150만원씩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 또 각국 선수단과의 교류를 위해 기념품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몇몇분들께 후원을 부탁드리고 있는데, 후원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나영일 100만원, 이동보 30만원, 장안편사보존회 20만원, 전시라 20만원, 김성민 15만원, 공윤식 10만원, 김창선 10만원 그리고 지동철 각궁 1장, 한용진 개량궁 1장 등이다. 후원은 물품뿐만 아니라 현금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계좌(농협 351-1172-8004-63, 활쏘기문화보존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로고제작

활쏘기문화보존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알리는 로고를 새롭게 제작하였다. 9월에 참가하는 세계노마드대회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의미로서 태극기와 함께 우리 활쏘기문화보존회의 깃발을 만들어야한다고 이야기하여 기존에 박근선생이 만든 활과 사람, 글월 文을 결합한 고풍스러운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강한 이미지를 주는 로고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수고해주신 박민정회원님께 감사드린다.



박근 선생이 만든 로고



4. 국가유산청 전승공동체 사업 신청

국가유산청의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의 주도적·자율적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향사례의 현대적 복원과 재현”이란 이름으로 충주시를 통해 신청중이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활쏘기문화보존회에서 황학정과 중구궁도협회(석호정)와 함께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활쏘기문화보존회의 주도로 성균관유도회충주지부(충주향교), 세계무술연맹과 같이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제안서를 충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에 제출한 상태이다. 본 사업은 2024.7.24.(수)~8.2.(금)에 신청하고, 9월중에 선정 예정이 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으로 지원하게 된다.

향사례 복원을 위해 2022년부터 박근선생 주도로, 김기훈, 양희선, 한용진, 지동철, 박근, 박종배, 나영일이 모여서 덕행교범(德行教範)을 번역하였던 경험이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로 다양한 향사례 홀기(笏記: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를 발굴하고 비교 분석하여 전통문화인 향사례를 고증·복원하고 재현하기 위해 아직 번역되지 않은 『향례합편(鄉禮合編)』(1797)과 『덕행교범(德行教範)』(1892) 속의 향사례 부분을 번역할 것이다. 둘째로 K-Culture의 일환으로 향교와 전통 활터에서의 활쏘기와 향사례 등을 현대에 맞도록 ‘신정(新訂)향사례’형태의 편람을 편찬하는 것이다. 특히 전통문화적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새로운 향사례 편람을 발간하여 전통활터와 향교 등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개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충주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활쏘기와 향사례에 대한 교육을 인성교육과 접목하여 실시하고, 충주향교 회원과 탄금정 회원 및 활쏘기보존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향사례를 복원하고자 한다.

넷째로 그동안 20여 년간 실시된 충주무술축제를 비롯한 충청도와 충주의 문화관광 상품들을 검토하여, 새롭게 복원된 향사례를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사례를 국가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한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재성 사무총장 에게 연락해주시면 좋겠다.

5. 공문접수 및 발송

- 1월 16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비영리법인 명칭 변경 등 협조요청 건
- 3월 24일: 청록행정사합동사무소와 행정대행계약
- 3월 14일: 도서 납본 협조요청(한양의 사라진 활터 등 3권) 국립중앙도서관
- 4월 23일: 국가유산청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
- 4월 23일: 국가유산청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알림
- 6월 25일: 임원선임협조요청(김종훈국제이사)
- 6월 26일: 활쏘기문화보존회 부회장 위촉 협조 요청(김창선부회장)

회원 대모집

1. 활쏘기문화보존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새롭게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2. 주위에 활쏘기문화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홈페이지(http://kacs2020.com/bbs/board.php?bo_table=0501)에 들어가 먼저 로그인한 후, “자료마당”에 들어가 “각종서식”에 있는 “입회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음, 이동보국장(010-6562-3135)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법인 **활쏘기문화보존회**

소식지 일시천금 2024년 7월호

